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8. 12. 13.(목) 총 7매(본문 4)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담당 자	• 과장 손덕환, 사무관 최은지, 주무관 문병철 • ☎ (044) 201-3662, 3669, 3670	
보 도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4.(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전남 담양군, 강원 삼척시, 경북 영주시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지자체 역량 제고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 지역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역정책 관계자 간 소통의 장으로 매 해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다음해 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 올해 대회에는 7개 도에서 총 12개 사업이 응모했으며, 지역개발 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발표회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 담양군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사업이 최우수 사례, 강원도 삼척시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도계 유리나라” 조성사업· 경상북도 영주시 공유 플랫폼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되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올해의 지역정책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전남 담양군 돌아온 담주 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 담양군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사업은 과거 담양군 경제 중심지였던 담양시장과 담주 4길 일대를 문화예술과 상업이 공존하는 지역거점공간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대 건축물 디자인을 살린 공간정비, 주민참여형 마켓 운영, 문화·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전통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색깔이 뚜렷한 거점을 조성하였다는 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담양군 “쓰담길” 조감도>

2 강원 삼척시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도계 유리나라” 조성사업

-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탑폐석을 활용하여 유리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폐광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독창적으로 활용한 유리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18.3월 개장 이후 16만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우수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평가 받았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전경>

3 경북 영주시 공유 플랫폼 조성사업

- 영주시 「공유 플랫폼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주민의 사랑을 받아 온 舊 도립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주시 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휴 공공건축물의 역사성·고유성을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지역주체들(협동조합, 건축가, 예술가, 청년활동가 등)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커뮤니티 복원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영주시 “영주 공유플랫폼” 구상>

-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정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최은지 사무관(☎ 044-201-36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전라남도 담양군
사업명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양시장과 담주4길 일대 활성화를 위하여 근대 건축물 중심의 거리정비,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주민·예술단체·청년단체가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달빛장>” “2017 대한민국 예술대장정> <담주다방> 등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담양시장과 담주4길 일대는 담양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최근 인구감소·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해 공간이 점차 쇠퇴하였음 ○ 이러한 공간에 새롭게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 예술가, 지역 전문가 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
사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주4길 일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81.8%가 사업 필요성에 찬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업진행을 위한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 담양 근대 건축물 디자인을 보전하고, 공간 조성 컨셉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및 사례 연구 동시 추진 ○ 현재 해당 사업지를 지역 거점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연계 시도 중(예: 담양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담양시장 루프탑 가든 디자인&플랜 공모 등)
심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주4길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라진 마을공동체 정서를 복구하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브랜드 콘텐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지역 내 다양한 축제·행사 등과 공간정비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었음 ○ 지역의 전통자원 현대화하여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지자체	강원도 삼척시
사업명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탑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의 일환으로 유리제품 제조·체험 등을 위한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 휴가 및 여가 활동 요구 증대를 대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전시실 및 역사관, 테마관, 판매센터, 야외전시장, 유리블로잉 시연장, 주차장 등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업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쇠퇴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유리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리클러스터 산업 육성
사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개발계획 수립 착수, 2014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 받아 2018.3월 사업 준공 및 개장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원 추추파크, 미인폭포, 뷰티스마켓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삼척시를 체류 관광지화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쓸비치, 해양레일바이크, 장호~용화로프웨이 등 해양관광지와 대금굴 & 환선굴 등 내륙관광축 개발을 통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학여행단, 어린이 관광객 등에게 인기, '18년 3월 이후 16만명 관광객 유치
심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대체산업으로 유리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의 기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임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향후 더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하드웨어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관광지 조성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사업명	영주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 도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재창조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물은 1983년부터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되어 왔고, 2008년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새로운 도서관의 개관으로 유휴건물로 방치되었음 ○ 해당 건물은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건물로서 해당 건물을 허물지 말고 유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동시에 지역 내 협동조합의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을 기획하게 됨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공간인 (구)도립도서관을 시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시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재설정하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참여·활발한 상호활동을 지원 ○ 거버넌스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거버넌스와 외부거버넌스, 시민, 방문객 등의 다양한 사용자 상생공간을 마련하고,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 지역거버넌스 재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 지역자산 발굴·연계를 통한 공유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과 도심지 내 근대역사관련 장소들을 연계·공유하여 힐링쉼터와 소통공간으로서의 플랫폼 제공 - 도심 가운데에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일상 공유 공간 조성
심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 사이의 사회적인 유대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다양한 거버넌스의 참여로 내실있는 사업 기획이 이루어짐 ○ 장소통합관리 수단으로서 도시·건축·공공 공간의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및 역사탐방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 우수

